

연구논문

조선시대 불서에 기록된 비구니의 현황과 특징

탁효정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조선불교사 전공
bellaide@naver.com

- I. 머리말
 - II. 불서에 기록된 니승 인명의 분포
 - III. 불서에 나타난 니승들의 불사 활동
 - IV. 비구니 활동의 경향과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시대 사찰은 목관 인쇄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다수의 불서를 간행했다.¹ 조선 불교는 개국 초부터 진행된 억불정책으로 인해 제도적 위축을 겪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점진적인 회복과 재정비를 이루었다. 이 시기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불서를 간행한 사실은 불교가 여전히 조직력과 신앙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불교계는 불서 간행을 통해 문과의 법통을 계승하고 사찰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들의 신앙 활동과 불교의 저변 확대를 도모했다.² 조선시대 불서는 대부분 목판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었다. 사찰에서는 불서 간행을 위한 모연 활동을 전개했고, 참여자들의 명단을 책의 권말 연화질이 나 난외(欄外)에 수록했다. 이 글에서는 목판본 간행 불서에 기록된 사부대중의 명단 가운데 사미니와 비구니 등 ‘니승(尼僧)’³의 범명을 DB화하여, 조선시대 비구니들의 활동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조선불교사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불교여성사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왕실 여성 중심의 연구가 주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6448).

1 옥영정, 『목관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서울: 글항아리, 2013), 292쪽.

2 이상백, 「조선 후기 사찰의 불서 간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0), 2~3쪽.

3 불서에 수록된 여성 승려 명단은 대부분 ‘尼○○’으로 표기되어, 해당 인물이 구족계를 수계한 비구니인지, 그 이전 단계의 사미니 또는 식차마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계단과 상관없이 출가한 여성 승려 전반을 지칭할 때는 편의상 ‘니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구족계를 받은 정식 승려이자, 여성승가의 제도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집단을 지칭할 경우에는 ‘비구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사료상에서 명확히 비구니로 확인된 경우에도 ‘비구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비구니와 여성 재가자들의 신앙 및 활동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비구니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당시 비구니들이 직접 남긴 기록은 극히 드물며, 사찰에 전승되는 대부분의 사료가 비구 중심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어, 비구니의 존재와 활동은 사지, 중창기, 불복장문, 고문서, 불화 화기 등 부차적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조선시대 간행된 불서에 기록된 니승의 법명을 수집·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니승의 활동 지역 분포, 불서 간행 참여 양상, 후원 방식 등을 분석한다. 나아가 시기별·지역별 특징을 중심으로 불서 간행에 나타난 니승들의 활동을 조명함으로써 조선시대 비구니 승가의 실태와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불서에 기록된 니승 인명의 분포

이 논문의 데이터는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가 수행한 ‘조선시대 간행 불교 서지 인명 DB 구축 사업’의 성과물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남도문화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조선시대 불교 문헌을 전수 조사하여, 총 1,643종의 불서에 실린 인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⁵ 조사 대상

4 조선시대 왕실이 아닌 일반 여성 출가자 또는 재가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이향순, 「감로도에 나타난 조선의 비구니승가」, 『한국문화』 49(2010); 전영숙, 「조선 초 불경언해와 불자여성의 참여」, 『선문화연구』 33(2022); 탁효정의 관련 논문들(2022~2024) 그리고 전영숙의 단행본 『역사 속 한국비구니』(서울: 민족사, 2025) 등이 있다.

5 이 데이터는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조선시대불서인명DB(<https://kabc.dongguk.edu/budna/index>)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 DB에는 고려시대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불서의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은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양 원각사 등에 소장된 목판본 불서이며, 여기에 수록된 연화질(緣化秩), 시주질(施主秩)은 물론 책의 난외(欄外)에 기재된 인명까지 포함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기 구축된 DB에 더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등재된 불서의 인명을 추가로 수집하여 보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인명 데이터는 총 9만 3,558명이다. 승려 및 예비 승려(사미, 사미니, 행자 포함)는 2만 2,462명, 재가자는 4만 2,368명,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2만 8,728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출가자인 니승(尼僧)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683명이다. 비구니(比丘尼, 比邱尼)로 명시된 경우는 204명, 비니(比尼)는 1명, 사미니(沙彌尼)는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니(尼) 또는 니승(尼僧)으로 표기되었다.

불서에 기재된 니승 명단은 여성 출가자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비구나 재가신도와는 활동 비교, 불서 간행의 지역적 분포, 승가 내 상관 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다만, 조선시대 서적에 수록된 시주자 명단은 주로 시주질, 간행 기록 등에 간략하게 실려 있고, 책의 난외(欄外)에 기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찰 창기나 불화와 달리 소속 사찰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인물의 소속 사찰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간행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활동 지역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지(寺誌), 불화, 불복장문서, 비문 등 다른 사료에 기재된 니승 명단과 교차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활동 지역 및 소속 사찰을 유추해 나가고자 한다.

1391년 이전과 1911년 이후에 간행된 불서 및 인명은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이 논문에 인용한 불서와 인명 중 해당 DB에 수록된 내용은 지면 관계상 각주를 생략했다.

1. 시기별 니승 분포

조선시대 불서에 기재된 683명의 니승 중 14세기(1392년 이후)에 활동한 인물은 1명, 15세기 7명, 16세기 0명, 17세기 8명, 18세기 72명, 19세기 595명, 20세기 초(1910년 이전) 0명이다. (중복명 포함) 전체의 약 87.5%인 595명이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어, 니승의 불서 간행 참여가 19세기에 급증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불서의 간행 시기 분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남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불서 1,643종의 간행 시기 분포는 다음과 같다.

- 14세기(1392~) 5종
- 15세기 178종
- 16세기 521종
- 17세기 508종
- 18세기 280종
- 19세기 114종
- 20세기 초 22종
- 간행 연대 불분명 15종⁶

또한 인명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총 9만 3,558명의 시기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14세기 78명

6 간행 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15종의 불서 중 15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서는 5종, 16세기는 3종, 17세기 2종, 18세기 3종, 19세기 2종이다.

- 15세기 6,864명
- 16세기 2만 9,816명
- 17세기 2만 7,247명
- 18세기 1만 8,767명
- 19세기 1만 786명
- 20세기 초(~1910년) 0명

현전하는 불서와 전체 인명 수는 16세기와 17세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니승 명단은 18세기와 19세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흐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니승의 기록이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헌에 반영되었거나, 특정 시대에 그들의 활동이 더 두드러졌음을 시사한다.

2. 지역별 니승 분포

조선시대 불서에 기재된 총 683명의 니승 명단을 지역 및 사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강원도 82명: 건봉사 9명, 신계사 3명, 유점사 39명, 석대암 12명, 성주암 19명
- 경기도 482명: 왕실(개성) 1명, 견성사 5명, 봉은사 443명, 보광사 14명, 불암사 14명, 망월사 4명, 내원암 3명, 봉인사 1명,
- 경상도 60명: 안음 영각사 19명, 벽송암 15명, 해인사 6명, 성주 쌍계사 5명, 봉정사 15명
- 전라도 9명: 화암사 1명, 화엄사 4명, 징광사 2명, 금산사 1명, 원암사 1명

- 충청도 1명: 덕산 가야사 1명
- 평안도 3명: 안주 선정암 3명
- 함경 13명: 안변 석왕사 13명
- 황해도 30명: 문화 월출암 30명
- 한성부 0명

특히 경기도에서는 1855년 봉은사본 『화엄경소초』 간행에 440명의 니승이 참여하여, 이 단일 자료가 지역 분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강원도 역시 금강산 일대와 철원 보개산에서 활동한 니승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조선시대 전체 목판본 불서 1,643종의 지역별 간행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전라도: 499종
- 경상도: 460종
- 경기도: 155종
- 충청도: 114종
- 평안도: 110종
- 황해도: 95종
- 강원도: 65종
- 함경도: 46종
- 한성부: 44종
- 간행처 미상: 55종

현존 불서의 간행지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니승 명단은 경기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어 뚜렷한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비구니의 기록이 더 활발히 남겨졌거나, 봉은사본 『화엄경소초』와 같은 개별 문헌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불서에 니승의 이름이 실려 있더라도, 그 문헌을 간행한 사찰이 곧 바로 해당 인물이 소속된 사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니승의 경우 특히 간행처와 시주자의 소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니승의 실제 활동 지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지(寺誌), 중창기(重創記), 불화 화기(畵記) 등 다양한 사료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Ⅲ. 불서에 나타난 니승들의 불사 활동

1. 경기 지역

1) 광주 봉은사 간행 불서

견성사는 봉은사의 전신에 해당하는 사찰로, 광평대군부인 신씨가 남편의 묘 인근의 작은 암자를 중창한 재사(齎寺)이다.⁷ 1470년 견성사에서 간행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에는 혜원(慧圓)과 선유(善柔) 2명의 비구니 범명이 명기되어 있고, 1485년에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에는 대화주 비구니 신환(信環)과 시주자 혜원과 선유 등 3명이 등장한다. 이 중 혜원은 광평대군부인 신씨의 범명이고, 선유는 그의 며느리인 영순군부인 최씨의 범명이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권말에는 총 332명의 동참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일부 판독 불가자 4~5명 제외), 광평대군의 아들과 손자, 친인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혜각존자 신미, 도대선사 학열, 대선사 학조 등 당대

7 탁효정, 「조선시대 봉은사 수륙재의 역사적 전개」, 『동양고전연구』 73(2018), 131~133쪽.

의 고승들과 일반 불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김수온이 쓴 발문에는 “영순군 공소공 부가 […] 스물일곱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모(慈母) 영가부부인 신씨 비구니 혜원과 배우자인 부인 최씨 비구니 선유가 장례 관련 모든 일을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감당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어, 책이 간행될 당시 광평대군 부인 신씨와 며느리 최씨가 비구니 신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그러나 그 외 다수의 동참자는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성별 및 출가·재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한편 1485년에 간행된 『지장경』에 대화주로 등장하는 비구니 신환은 「오대산 영감암 중창기」에서 다시 확인된다. 여기에는 “(상의 조씨가) 약간의 곡식과 약간의 포백을 회사하니, 여기에 우바이 김씨 보배(寶背)와 조씨 석을금(石乙今)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연을 맺었고, 비구니 혜명(惠明)과 신환(信還), 비구 신운(信云) 등이 서둘러 힘을 합하여 […] 공력을 마쳤다”라고 기록돼 있다.⁹

영감암은 세조 대 궁중 여관이었던 상의 조씨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중창한 원당으로, 신환은 이 불사에 참여한 데 이어 왕실의 주도로 간행된 『지장경』에서도 대화주로 활동했다. 이는 신환이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비구니였음을 시사한다. 『지장경』은 본래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견성사에서 관각을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견성사에 보관되고 있었다. 이후 1474년 성종의 정비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실에서 내수사 예산을 들여 경관을 완성했으며, 1485년에는 누락되었던 제24~26판을 보각하여 간행했다. 이때 대화주로 활약한 인물이 바로 신환이었다.

봉은사에서 간행된 불서에서는 총 443명의 니승 명단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跋文.

9 『拭疣集』「靈鑑庵重創記文」.

데 1607년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에 2명, 1856년 『불설천지पाल양신주경』에 1명, 그리고 나머지 440명은 1856년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소초』에 나타난다.

현재 봉은사 판전(板殿)에 경판이 보관돼 있는 『화엄경소초』는 남호 영기(南湖永奇, 1820~1872)가 판각을 주도한 것으로, 총 9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불경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경전을 간행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데, 19세기 중반 조선 불교계는 극심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호 영기는 판각 모연을 위한 가사 「광대모연가(廣大募緣歌)」를 지어 불사 참여를 독려했다.¹⁰ 그 결과 총 6,684명의 사부대중이 인정, 시주 등에 동참했는데, 이 중 재가자는 4,847명, 승려는 1,510명, 신분이 불분명한 이들은 327명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승려 1,510명 가운데 니승이 440명(尼 417, 比丘尼 21, 比尼 1, 沙彌尼 1)으로, 전체 승려의 29.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일 불사에서 니승의 참여율이 높은 경우는 비구니 독립사찰을 제외하면 매우 드문 사례이다. 예컨대 1775년 영각사본 『화엄경소초』에는 6,749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으나, 비구니는 19명에 불과했다.

봉은사본 『화엄경소초』의 화주질에는 도화주인 남호 영기를 비롯해 총 97명의 화주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비구니는 16명이다. 나머지는 상궁(尙宮) 1명, 신녀(信女) 15명, 신사(信士) 3명, 곤명(坤命) 1명 그리고 다수의 비구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비구니들이 화주로 참여함에 따라, 니승들의 시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주자로 참여한 니승 대부분의 소속 사찰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불화의 화기, 현판 등의 명단과 비교해 본 결과, 약 120여 명의 니승이 다른 사료

10 김종진, 「1850년대 佛書刊行運動과 불교가사: 南湖永奇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4(2004), 129~130쪽.

에서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한성부와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도성 밖 비구니 4승방으로 알려진 미타사, 보문사, 청룡사, 청량사 소속 비구니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옥수동 미타사의 경우, 1873년의 「종남산미타사중수기」에 동참한 다수의 비구니 명단이 봉은사본 『화엄경소초』 명단과 일치하며, 『종남산미타사약지』의 대중은파(大衆恩派) 계보도에 실린 인물로 추정되는 이들도 다수 등장한다.¹¹ 탑골승방 보문사의 경우, 1865년의 대웅전 상량문 및 「동참위천대시주현판(同參爲薦大施主懸板)」에 등재된 비구니들 다수가 확인된다.¹² 그 외에도 「청룡사 칠성도」의 시주자인 의극(義極), 계종(戒宗),¹³ 「만수사 신중도」에 기재된 취운(翠允), 치벽(致碧), 승철(勝哲), 영수(永修), 응벽(應碧)¹⁴ 등의 비구니 이름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만수사 신중도」에 등장하는 5명의 비구니 모두 『화엄경소초』 불사에 화주 또는 시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강화도 정수사 소속 비구니들의 참여도 주목할 만하다. 1848년 『정수사 법당 중수 상량문』에 실린 묘각(妙覺), 쾌봉(快奉), 지환(智還), 법진(法眞), 만흥(萬興) 등이 봉은사 불사의 시주자로 참여했다.¹⁵

금강산 지역에서도 다수의 비구니가 봉은사 불사에 동참했다. 1881년 「장안사 사성전 중수기」, 1882년 「건봉사 속암 일람(乾鳳寺屬庵一覽)」, 1883년 「장안사 보문암(하관음) 시주기」, 등에 실린 장안사의 정문(定文), 경홍(敬洪), 신계사의 상엽(尙曄),¹⁶ 건봉사의 성윤(性允)¹⁷ 등이 동참했음을 확인할 수 있

11 『終南山彌陀寺略誌』, 31~32쪽.

12 보문사 소장 고문서 및 보문사 대웅전 내 현판.

13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 자료집』(대전: 문화재청, 2013a), 193쪽.

14 위의 책, 118쪽.

15 『傳燈本末寺誌』, 106쪽, 245쪽, 383쪽.

16 『楡岾寺本末寺誌』, 384쪽.

17 『乾鳳寺及乾鳳寺本末史蹟』, 10쪽.

다. 특히 상엽은 태감(太鑑), 태전(太典), 세함(世咸), 의담(義湛) 등 자신의 상좌들과 함께 참여했다.

충북 지역에서는 1888년 칠장사 명부전과 원통전 불화 제작에 참여한 도원(道元), 계환(戒環), 유신(有信), 재일(載日), 지성(智成) 등과 1891년 안심사 대웅전 삼세불도에 참여한 지성 등이 봉은사 불사와 중복된 인물로 파악된다. 이들 대부분은 법주사 및 안심사에 소속된 비구니였다.¹⁸

경상도 지역에서는 1868년 예천 용문사 신중도 제작에 참여한 덕징(德澄), 영한(永閑)¹⁹과 1856년 「사불산 대승사 불량등촉계」의 계원인 낭천(朗天) 등 7명의 비구니가 봉은사의 시주자로 확인되었다.²⁰ 1876년 선산 도리사 법당 중창과 후불탱 조성에 참여한 묘찰(妙察) 등 4명도 포함되었다.²¹

이처럼 한양 도성 밖 4승방을 비롯하여, 강화도·금강산·경기 남부·충청도 북부·경상도 북부 등지에서 활동하던 비구니들이 대거 봉은사본 『화엄경소초』 불사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엽, 의찬, 유봉 등 19세기 중반에 적극적으로 불사 활동을 전개한 비구니들이 화주로 참여한 점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구니 관계망의 활발한 운영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봉은사는 경기 남부의 중심 사찰로 기능했으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비구니들의 불사 참여가 두드러진 핵심 거점이었다.²² 특히 1856년 봉은사본 『화엄경소초』 판각 불사는 서울·경기 지역과 금강산 일대에서 활동

18 탁효정, 「조선시대 佛畫 畫記에 나타난 비구니 명단과 활동」, 『인문학연구』 37(2024a), 397쪽.

19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자료집 II』(대전: 문화재청, 2013b), 293쪽.

20 『大乘寺誌』, 259~262쪽.

21 문화재청 편집부(편), 앞의 책(2013b), 96쪽.

22 탁효정, 「조선후기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분포와 특징」, 『한국학』 46-4(2023), 210~211쪽.

하던 비구니들의 불사 역량이 집약적으로 결집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양주 불암사 간행 불서

불암사에서 간행된 불서에서는 총 14명의 니승 명단이 확인되었다. 1673년 간행된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蹟)』에는 수정(水正)이 등장하며, 1795년에 간행된 『불설고왕관세음경』, 『지경영험전』, 『불설대승무량수장엄경』에는 치근(致瑾), 경천(慶天), 상유(常幼) 세 비구니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어 1796년 간행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에는 치근, 광규(曠圭), 같은 해에 간행된 『불설수생경초언해본』과 『금강반야바라밀경』에도 치근이 시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불암사 간행 불경 가운데 치근은 여섯 차례나 반복 등장하며, 특히 『수생경초언해본』과 『금강경』에서는 ‘대시주’로 명시되어 있어, 당시 불사에서 중심적 역할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해당 불경의 화기에는 “대시주 비구니 치근이 세상을 떠난 상좌 비구니 광규와 여러 생에 인연이 깊은 친족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며 간행하다”라는 기록이 실려 있다.

경기 북부, 특히 오늘날 봉선사의 말사들이 위치한 양주, 파주 일대는 전반적으로 비구니의 활동이 희박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²³ 『봉선본말사지』에는 물론, 해당 지역의 불화나 복장 문서 등에서도 비구니 관련 기록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치근은 경기 북부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구니이다.²⁴ 또한 남양주 홍국사의 제6변성대왕, 제8평등대

23 탁효정, 「조선후기 비구니의 활동과 비구니사찰의 특징: 寺誌에 기재된 尼僧 범명 DB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10(2024b), 94~95쪽.

24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서울: 불광출판사, 2017), 558~559쪽;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인천·경기 자료집』(대전: 문화재청, 2013c), 264쪽; 『奉先

왕, 제15도전륜대왕도(시왕도)에는 광규의 영가를 위하여 시주한 기록이 남아 있다.²⁵ 이로 미루어 볼 때 치근에서 광규로 이어지는 비구니 문중이 경기 북부 지역의 비구니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양주 보광사 간행 불서

양주 천마산 보광사에서 1869년에 간행된 『삼봉집(三峰集)』에는 창인(暢仁)을 비롯한 니승 14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 명단 중 다른 사료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묘첨(妙瞻)과 묘보(妙寶) 두 명이다. 묘첨은 1858년 통도사에서 조성된 관음보살도의 연화질에 등장하며, 이 불화 화기에는 탑골승방 보문사의 비구니 유봉(有峰)이 노옹사(老翁師)인 각신(覺信)의 명복과 은사인 묘첨의 안녕을 발원하며 시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²⁶ 묘보는 1865년 보문사 대웅전 상량문과 같은 해 작성된 동참위천대시주 현판, 그리고 보문사 극락전의 연산회상도에 시주자로 등장한다.²⁷ 이름의 향렬 및 활동 범위로 볼 때, 묘첨과 묘보는 보문사 소속 비구니이자 사형·사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12명의 비구니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이나 불화, 화기 등에서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4) 양주 망월사 간행 불서

양주 도봉산 망월사(望月寺)에서는 4명의 니승 명단이 확인되는데, 1800년에 간행된 『진언집』의 권말 시주질에 기록된 채응(彩應), 광희(廣熙), 신흠

本末寺誌』, 18쪽.

25 송천스님·이종수·허상호·김정민(편저), 『韓國의 佛畵 畵記集』(서울: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941쪽.

26 위의 책, 531쪽.

27 문화재청 편집부(편), 앞의 책(2013a), 150쪽.

(信欣), 신한(信聞) 등의 이름이 확인된다. 시주자 중 채응과 광희의 법명은 1798년 작성된 개성 원통사(圓通寺)의 「건륭 2년 중창 양간록」의 본사질(本寺秩)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²⁸ 이로 보아 『진언집』의 시주에 참여한 니승 중 일부는 개성 원통사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후기 비구니들이 원통사의 내원암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수행한 사실이 「원통사지」를 통해 확인된다.²⁹

5) 양주 내원암 간행 불서

양주 삼각산 내원암에서는 1853년에 간행된 『불설관무량수불경』에 충엽(忠燁), 태식(太息), 월한(月漢) 등 3명의 니승 법명이 실려 있다. 이 중 태식은 1865년 「보문사 대웅전 상량문」 및 1867년 「보문사 극락전 영산회상도」의 시주자로 기재된 ‘태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³⁰ 한양 근교의 비구니들이 내원암의 경전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6) 양주 봉인사 간행 불서

1889년(고종 26) 양주 봉인사(奉印寺)에서 간행된 『회편선문염송집설화』의 권말 시주질에서 비구니 응섭(應燬) 1명이 확인된다. 이 불서의 시주자 명단에는 당시 세자빈 민씨(순명효황후)와 궁중 상궁, 재가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 시주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구니 시주자는 응섭 1명만 확인되는데, “比丘尼 應燬 伏爲”로 표기되어 있어, 응섭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응섭

28 『傳燈本末寺誌』, 205쪽.

29 탁효정,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 『전등본말사지』에 수록된 비구니 명단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03(2022a), 151쪽.

30 보문사 대웅전 지붕에서 발견된 「大清東治四年(1865)乙丑三月初四日午時 上樑文」과 같은 해에 제작된 보문사 대웅전 「同參爲薦大施主懸板」에는 泰植으로, 보문사 극락전 영산회상도에는 太息으로 기재돼 있으나,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 행적이나 활동에 대한 다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강원도 지역

1) 간성 건봉사 간행 불서

금강산 건봉사(乾鳳寺)에서 간행된 불서에서는 총 9명의 니승 명단이 확인되며, 이들은 모두 1861년에 간행된 『불설무량수경』의 시주질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관수(寬修)는 19~20세기 초 유점사의 시주자 명단인 「유점사대공덕주록(楡岾寺大功德主錄)」에 등장하는데, 당시 금강산에서 대화주(大化主)로 명성을 떨쳤던 사득, 상근 등의 비구니들과 함께 관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³¹ 이로 볼 때 관수는 금강산 일대에서 대표적인 비구니 시주자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관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비구니는 현재까지 다른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건봉사본말사적』에 따르면, 1882년 비구니 성윤(性允)과 정심(真心)이 건봉사 산내 암자인 대원암(大願庵)을 중건했으며, 1919년에는 정심이 낙서암(洛西庵)의 축석(築石)을 담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³² 또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건봉사에 비구니 승방이 형성되어 있었고, 해당 암자들을 중심으로 비구니 공동체가 상주하며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1861년 『불설무량수경』 간행 시주에 참여한 9명의 비구니는 건봉사 소속 또는 금강산 일대 사찰에서 활동하던 니승들로 추정된다.

31 『楡岾寺本末寺誌』, 147쪽.

32 『乾鳳寺及乾鳳寺本末史蹟』, 10쪽.

2) 고성 신계사 간행 불서

금강산 신계사에서는 1867년 간행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권말 시주절에서 상엽(尙燁), 의담(義湛), 즉윤(即允) 등 3명의 비구니 명단이 확인된다. 이 중 상엽은 화주로, 의담과 즉윤은 대시주(大施主)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상엽은 금강산 신계사 산내암자인 미타암(彌陀庵)의 창건주로 활동한 인물이다. 「금강산신계사미타암신건기」에 따르면, 상엽은 공주 마곡사 출신의 승려로, 팔도를 주유하며 절을 세우고 불화를 조성하고, 경전을 인출하는 등 각종 불사에 참여하다가, 금강산으로 이주해 미타암을 창건했다.³³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상엽은 19세기에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비구니 화주 중 한 명으로 꼽힌다.³⁴

상엽의 이름은 1855년 봉은사본 『화엄경소초』의 화주 명단에서도 확인된다. 동일한 한자명만으로는 두 인물이 동일인물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좌니(上佐尼) 의담이 함께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불사 모두 미타암 창건주 상엽과 그 승속들이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867년 금강산 신계사에서 간행된 『금강경』은 미타암 비구니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간경 불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고성 유점사 간행 불서

금강산 유점사에서는 총 40명의 니승 명단이 확인되는데, 1824년에 간행된 『대장일람경조상품』의 권말 시주절에는 총 27명의 비구니가, 1869년에 간행된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난외에는 13명의 비구니 법명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약사칠불공덕경』의 시주절에는 비구니 계책(戒策)이 망은사

33 『楡岾寺本末寺誌』, 245~246쪽.

34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불교학연구』 70(2022b), 46~47쪽.

(亡恩師) 용월의관(龍月義寬), 망부(亡父) 이수빈(李壽彬), 모(母) 박씨(朴氏)의 명복을 비는 시주자로 등장한다. 계책의 활동은 여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그의 은사로 기재된 용월의관은 1639년에 제작된 ‘니용월당의관지탑(尼龍月堂義寬之塔)’을 통해 확인된다. 이 승탑은 현재 공주 갑사에 현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계룡산 갑사 일대에서 활동하던 비구니들이 유점사 등의 금강산 사찰로 유학을 왔고, 이후 스승의 명복을 위해 시주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장일람경조상품』의 시주질에 등장하는 보영(普永)과 경홍(敬弘)은, 1819년 「금강산 장안사 관음암 개와기문」의 보영(寶英), 경홍(敬洪)³⁵과 한자 표기는 상이하나 활동 시기와 지역이 유사하여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약사칠불공덕경』 난외에 기재된 13명의 비구니는 다른 사료에서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개별 인물의 행적 추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유점사가 조선시대는 물론 근대까지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처 중 한 곳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유점사 일대에서 수행하던 비구니들이 간경 불사에 대거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철원 석대암 간행 불서

철원 석대암에서 간행된 불서에서는 정민(正珉) 등 12명의 비구니가 확인되며, 모두 1839년에 간행된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의 시주자로 기재되었다. 석대암은 철원 보개산 심원사의 부속 암자로, 보개산은 조선시대 비구니들의 주요 수행처 중 한 곳으로 파악된다. 특히 1636년 인조 대 민회빈 강씨 무고(巫蠱) 사건 당시, 보개산에서 활동하던 비구니들이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35 『楡岾寺本末寺誌』, 383쪽.

정황이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³⁶ 해당 기사에서 구체적인 사찰명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17세기 보개산 일대에 비구니 승가가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원사지』에 따르면 1889년 심원사의 부속 암자인 남암(南庵)은 비구니 계선(戒善)에 의해 중건되었으며, 1905년 안양사 중건 당시에도 부속 암자 소속 비구니들이 불사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심원사지』에 보개산 암자들의 비구니 활동에 대한 기록은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등장하며, 이로 인해 1839년 불경 간행 당시 시주자로 참여한 정민 등 12명의 구체적인 행적은 사지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5) 철원 성주암 간행 불서

철원 성주암에서 간행된 『유마힐소설경』의 시주질에는 총 19명의 비구니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성주암은 철원 심원사의 산내 암자이다. 동참 비구니 가운데 유봉(有奉), 의극(義極), 묘첨(妙瞻)은 서울 보문동 보문사 소속 비구니들로, 이들의 명단은 1865년에 제작된 ‘동참위천대시주 현판’ 및 통도사 관음전 관음보살도 화기에 시주자로 나타나며, 이때 망은사(亡恩師), 망부(亡父), 망모(亡母)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 스승과 부모를 추선하려는 보시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교차 기록을 통해 유봉·의극·묘첨 등이 성주암 불사에도 동참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단일 사찰에 소속된 지역 승려가 아니라 서울과 강원, 경상권을 넘나드는 활동 범위를 가진 비구니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머지 16명에 대한 활동 내역은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36 『仁祖實錄』 24년(1646) 6월 3일.

3. 경상도 지역

1) 성주 쌍계사 간행 불서

성주 쌍계사에서는 1833년 간행된 『불설천지पाल양신주경』의 시주질에서 총 9명의 비구니 명단이 확인된다. 쌍계사는 18세기 성주 지역의 주요 불서 간행 및 책판 보관소 중 하나로, 당시 출판 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했다.³⁷ 9명의 비구니 가운데 영전(永典)은 1824년 삼각산 보문사 극락전 상량문³⁸에서 별좌(別座)로 등장하며, 선화(善和)와 보경(寶鏡)은 1855년 봉은사본 『화엄경소초』의 시주자 명단에도 등재되어 있어, 불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활동력 있는 비구니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경신(敬信)은 1839년 철원 석대암에서 간행된 『불설천지पाल양신주경』의 시주자 명단에 나타난다. 이는 쌍계사 불경 간행에 참여한 니승들이 단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북 안의·성주, 서울 탑골승방, 강원도 철원 보개산 등지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인물들임을 보여 준다.

2) 안동 봉정사 간행 불서

1769년 안동 봉정사에서 간행된 두 권의 불서에는 총 10명의 비구니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권말 시주질에는 출진(出塵)과 보명(寶明)이, 『사분계본여석』의 난외(欄外)에는 염활(念闊) 등 8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만근(滿根)은 1753년 대구 동화사에서 간행된 『불설아미타경언해』의 시주자로 확인되며, 1755년에 제작된 「운문사 대웅보전 삼신불도」에서 바탕시주(婆蕩施主)로 참여했다. 신관(信寬)의 법명은 『사분계본여석』에

37 손계영, 「조선시대 성주지역 책판과 출판문화의 특징」, 『서지학연구』 99(2024), 176~177쪽.

38 보문사 소장 고문서.

서 두 차례 등장하는데, 각각 망부(亡父) 도팔부(都八內)와 망숙(亡叔) 도팔웅(都八雄)의 명복을 발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분계본여석』에 등장한 니승들은 모두 부모 및 친지의 명복을 비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참여 목적에 신앙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을 떠난 부모와 가족을 위해 경전 간행에 참여함으로써, 공덕을 회향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안음 영각사 간행 불서

안음 영각사에서는 19명의 니승이 확인되는데, 모두 1775년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소초』에 실려 있다. 『화엄경소초』는 조선 후기에 세 차례 간행되었는데, 1690년 징광사, 1775년 영각사, 1856년 봉은사에서 각각 간행되었다. 1774~1775년에 판각된 『화엄경소초』 경판이 이 사찰의 장경각(藏經閣)에 봉안되었다.

영각사에 봉안된 경판은 한 사찰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전국 여러 사찰에서 판각한 후 영각사로 이관된 것이다. 각 권의 간기(刊記)에는 충청도 감포현 아미산, 공주 묘각사, 공주 마곡사, 전라도 지리산 실상사, 일암정사, 무주 구천동 등의 판각처가 명시되어 있다.³⁹ 영각사본 『화엄경소초』 권3의 권말에는 『화엄경소초』에 화주로 참여한 니승의 발원문이 수록돼 있다.

화사니(化士尼) 대민(大敏)이 여러 승속 대중을 이끌고 몇몇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 불사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발원하오니 즐겁게 보시하는 마음이 굳건하여 반드시 복전(福田)을 만나게 하소서. 부정관(不淨觀)이 나타나 번뇌

39 강현찬, 「조선 후기 『화엄경소초』의 판각과 영장이본대교 본의 의의」, 『한국사상사학』 53(2016), 91~92쪽.

의 습기가 영원히 끊어지며, 이로써 반야(般若)의 인연을 심어 장차 보리(菩提)의 열매를 증득하게 하소서. 또한 현생의 부모에게 이익이 미치고, 법계의 모든 원한 맺은 중생에게도 두루 미치게 하소서.

이 문구를 통해 니승 대민이 승려와 재가자들을 이끌고 권선 활동을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민이라는 이름의 니승은 비슷한 시기의 전라도 금구 금산사에서 활동이 확인된다. 금산사 금강문 중수 당시 발견된 상량문(1796)에 따르면, 대민을 포함한 세 명의 비구니가 도화주(都化主)를 맡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⁰

법명이 동일하고 활동 시기가 겹치는 점, 그리고 대규모 불사에 중심 인물로 참여했다는 점, 영각사본 『화엄경소초』 경판의 상당수가 전라도 지역에서 인각되었다는 점에서, 두 기록의 비구니 대민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외 니승들의 활동은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함양 벽송암 간행 불서

1797년 함양 벽송암(碧松庵)에서 간행된 『범망경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보살계본』과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총 11명의 비구니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범망경계본』에는 1명이, 『지장보살본원경』의 난외에는 10명이 실려 있다. 비구니 명단 중 광연(光然)은 두 경전에서 모두 확인된다. 그는 『범망경계본』의 대시주질(大施主秩)과 『지장경』의 난외에도 이름이 올라 있어, 불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9명의 비구니는 모두 『지장경』의 난외에만 등장한다. 이 가운데 인희(印希)는 1817년 해남 대흥사에서 조성된 천불상(千佛像) 조성 동참자 명단인 「천불신조성동참축정록(千佛新造成同參

40 『金山寺誌』, 215쪽.

祝頂錄)의 시주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9명의 비구니는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5) 합천 해인사 간행 불서

1882년 합천 해인사에서 간행된 『다비작법』 권말에는 총 6명의 비구니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장(海藏)은 타산질(他山秩)에, 지준(智俊), 지홍(智弘), 유관(有寬), 해훈(海訓), 의영(意英)은 산중종사질(山中宗師秩)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해장은 타산질에서 마하사(摩訶寺) 소속 비구니로 기재되어 있다. 마하사는 현재 부산에 위치한 사찰로, 범어사의 말사이다. 해장(海藏)이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경남 지역의 불사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1889년 범어사 미륵전 중수기, 1904년 통도사 양산 비로암의 아미타구품도 및 지장도, 1905년 범어사 팔상전 아미타회상도, 1908년 범어사 팔상나한독성각중건기 및 제성상신화기 등에 해장이 참여한 기록이 나타난다.⁴¹ 특히 905년 범어사 팔상전 아미타회상도에는 해장이 본사 산중시주질에 포함되어 있어, 범어사 소속 승려로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해장은 동래 범어사를 중심으로 하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등 경남 지역의 주요 불사에 빈번히 참여했던 비구니로 추정된다.

해인사 산중종사질에 등장하는 지준, 유관 등도 이 시기 주요 불사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 지준은 1873년 해인사 범보전의 비로자나불도, 1881년

41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자료집 II』(대전: 문화재청, 2013e), 130쪽, 319쪽;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자료집 III』(대전: 문화재청, 2013f), 41쪽; 송친스님 외(편지), 앞의 책(2011), 611쪽, 『梵魚寺誌』, 198쪽, 220쪽.

관음전 아미타회상도, 조선 후기 통도사 연화기 현판에 이름이 나타난다.⁴² 유관은 1890년 해인사 홍제암 석가모니불도, 1892년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도의 연화질에서 확인된다.⁴³

해인사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기능해 왔으며, 삼선암, 금선암, 약수암 등 여러 암자들이 오늘날까지도 비구니 수행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다비작법』에 등장하는 이들 비구니들은 해인사에 소속되었거나, 범어사·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 불교 네트워크 내에서 활발히 활동한 인물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조선 후기 범어사와 해인사 등 경상도의 대찰에 소속된 비구니들이 지역 불교계 내에서 일정한 신앙적·조직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파악된다.

4. 충청도 지역

충청도 지역에서는 1765년 덕산 가야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요해』에서 비구니 승품(勝稟) 1명의 명단만이 확인된다. 불서에 기재된 명단만으로는 충청도가 비구니 승가의 불모지로 비칠 수 있지만 불화 화기(畵記)에 기재된 명단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충청도는 비구니들이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던 지역이었다.⁴⁴ 특히 공주 마곡사는 단일 사찰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비구니들이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갑사에는 17세기에 조성된 비구니 승탑이 전해지는데, 이는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도 드물

42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자료집 I』(대전: 문화재청, 2013d), 297~298쪽; 문화재청 편집부(편), 앞의 책(2023f), 94쪽.

43 송천스님 외(편저), 앞의 책(2011), 217쪽; 문화재청 편집부(편), 앞의 책(2013d), 298쪽.

44 탁효정, 앞의 글(2024a), 402~407쪽.

게 확인되는 사례로, 당시 충청도 지역의 비구니 승가가 일정한 규모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금강산 등지에서 활동하던 상업, 계획 등의 니승들이 충청도 출신이었음을 고려할 때, 충청 지역 비구니들의 신행 활동은 결코 미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서 시주자 명단에는 니승들의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사찰 내 니승들의 활동이 점차 부각되던 18세기 중반 이후, 충청도에서 불서 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충청도 지역에서 간행된 불서는 총 114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대부분은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간행된 것이다. 1771년 가야사에서 『범망경노사나불설』이 간행된 이후로는 목판본 불서 간행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비구니의 불사 참여가 점차 확대되던 시기에 충청도에서는 불서 간행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시주자 명단 등에서 니승들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전라도 지역

전라도에서 간행된 불서에 나타나는 니승은 총 9명으로 확인된다. 먼저 1724년 구례 화엄사에서 간행된 『불설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에서 해담(海湛), 태현(太玄), 처련(處蓮), 태련(太蓮) 등 4명의 비구니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1700년 낙안 정광사에서 발간된 『화엄경소초』에서는 각신(覺信), 영충(永聰)이 등장하며, 나머지 사찰에서는 각기 1명씩만 확인된다. 고산 화암사(古山 花巖寺)에서는 1443년 간행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에 각해(覺海)가 ‘동원비구니(同願比丘尼)’로 기록되어 있다. 1457년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육경합부』에는 묘명(妙明), 1720년 금구 금산사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언해』에는 각오(覺悟), 1791년 순천 송광사(松

廣寺)의 『지장보살본원경 언해』에서는 옥화(玉花)가 각각 확인된다.

이처럼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불서에서 니승 명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라도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불서가 간행된 지역이다. 18세기 중반 이후 불서 간행 빈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충청도와는 달리 20세기 초까지도 불서 간행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서에서 니승의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불서뿐만 아니라 불화 화기나 사지(寺誌) 등 다른 유형의 자료에서도 비구니의 활동 기록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불화 화기 등을 통해 비교적 활발하게 확인되는 충청도 지역 비구니들의 활동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차이는 전라도 지역 비구니들의 활동이 매우 미미했거나, 당대의 기록 관행이 니승의 활동을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6. 북한 지역

1) 평안도 안주 선정암 간행 불서

평안도 안주의 선정암(禪定庵)에서는 1685년에 간행된 『선문염송설화』에서 비구니 도정(道正), 의원(義元), 현전(玄典) 등 3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선정암은 묘향산에 위치한 암자이다. 세 비구니의 법명은 이 문헌 외의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묘향산 인근에서 수행하던 비구니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함경도 안변 석왕사 간행 불서

함경도 안변의 석왕사(釋王寺)에서는 1888년 간행된 『역산집』에서 13명의 니승 법명이 확인된다. 『역산집』은 역산 선영(櫟山善影, 1792~1880)의 시문과 산문을 엮은 문집이다. 『역산집』 하권 권말에는 수은(受恩), 수법(受法), 수

선(受禪), 수계(受戒), 은손(恩孫), 법손(法孫), 법증손(法曾孫), 은증손(恩曾孫) 명단이 나열돼 있는데, 비구니의 법명은 모두 수계 명단에 등장한다. 역산 선영에게 계를 받은 비구니들이 스승의 문집 간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구니 수계 제자 중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상엽(尙燁)은 금강산 신계사 미타암의 창건주 상엽(尙燁)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⁴⁵ 또한 13명의 비구니 중 6명의 법명에 ‘환(煥)’ 자가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어, 동일한 사승(師承) 관계 또는 같은 문중에 속한 수계 비구니들이 함께 간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봉산석왕사약지』에는 석왕사의 산내 암자인 백련암(白蓮庵)을 비구니 원오(圓悟)와 원묘(圓妙)가 중창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⁴⁶ 이를 통해 석왕사에 비구니 독립 사암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함경도 지역은 사지(寺誌)나 불화 화기 등의 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파악하기 어렵다.

3) 황해도 신천 월출암 간행 불서

황해도 신천군 구월산 자락에 위치한 월출암(月出庵)에서는 1866년 간행된 『불설아미타경』에서 30명의 비구니 명단이 확인된다. 월출암은 황해도를 대표하는 사찰인 패엽사(貝葉寺)의 산내 부속암자이며, 당시 간행된 경전의 시주 명단에 이처럼 많은 수의 비구니가 포함된 것은 패엽사 내 또는 인근에 비구니들의 독립사암 및 승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패엽사는 일제강점기 31본산 중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황해도 불교의 중심 사찰

45 상엽이 금강산에 입산하기 전에 팔도를 주유하며 절을 세우고 불사를 설행했다는 「금강산 신계사 미타암 신건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상엽이 함경도에 머물 당시 설봉사에서 역산 선영으로부터 계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46 『雪峯山釋王寺略誌』, 12쪽.

이었으며, 산내 암자였던 월출암에서의 경전 간행 역시 그 위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지역(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서 비구니 명단이 확인되는 불서는 각 도별로 단 1종에 불과하다. 사지, 중창기, 불화 화기 등 사료의 물리적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 지역 비구니들의 신앙 활동과 공간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자료적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선문염송설화』, 『역산집』, 『불설아미타경』 등에 기재된 시주 명단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북한 지역에서도 비구니가 경전 간행 및 불사에 참여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석왕사, 패엽사 등에서는 비구니들이 독립적인 사암을 운영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IV. 비구니 활동의 경향과 특징

조선시대 불서에 수록된 니승 명단은 단순한 인명 기록을 넘어서, 당시 비구니들의 활동 무대와 사회적 참여 양상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장에서는 이 명단의 전반적인 경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기적 편중: 18~19세기에 집중된 참여 기록

불서에 기재된 니승 명단은 주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단의 분포는 불서의 간행 분포와 상반된 수치라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II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목판본 불서는 16~17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으로 많은 전적이 소실되었음을 감안할 때, 실제 간행 불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불서의 간행은 크게 감소했으며, 19세기에는 114종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면, 니승의 명단은 불서 간행의 전반적 감소 추세와는 달리, 오히려 18~19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니승의 불서 간행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시점은 18세기 후반부터이다. 18세기 전반에는 불서에 등장하는 니승이 단 5명에 불과했으나, 후반기에 이르면 64명으로 급증한다.

이러한 경향은 불교계 전반의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18세기 후반 이후 승려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1750년 균역법의 시행 이후 ‘사폐승잔(寺廢僧殘)’, 즉 사찰의 폐쇄와 승려의 감소라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반 백성의 역은 줄어든 데 비해 사찰의 역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양역에 비해 승역이 더 과중해지자 역을 피해 승려가 되는 피역지민(避役之民)의 수는 줄었고, 결과적으로 승려 수는 더욱 감소했다. 이러한 사폐승잔 현상은 승군(僧軍), 의승(義僧), 지역(紙役) 등 제도적으로 확립된 승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공백을 초래하였고, 이는 사찰당 승역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승려와 사찰 수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⁴⁷

19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인한 삼정의 문란, 민란의 발생, 왕실 재정의 악화에서 초래된 막중한 역은 불교계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쳐 사찰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사찰의 승려가 줄어들고 사찰이 영세화되었다. 외형상 사찰의 수가 여전히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영세한 규모의 암자가 늘

47 김선기, 「조선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3), 254~264쪽.

고 사격을 갖춘 절은 줄어들었으며, 승역을 담당하는 비구승의 수 또한 감소하였다.⁴⁸

이러한 조선 후기 불교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비구니들의 불사 참여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즉, 사찰 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구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찰 운영과 불사에 기여하는 사례가 증가했던 것이다. 이는 비구승 중심의 승가가 비구니들을 공식적인 일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찰의 부속 암자 중창에 비구니가 중창주로 등장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당시 비구 중심의 사찰 운영이 경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그 공백을 비구니가 메우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적 분포: 경기와 금강산에 집중

니승 명단이 수록된 불서는 지역적으로 경기(봉은사 등)와 금강산(유점사 등)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II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불서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불서 간행 경향과는 달리, 비구니 명단이 포함된 불서는 경기와 강원도 금강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한성부 외곽의 비구니승방, 즉 두물개승방 미타사, 탑골승방 보문사, 돌곶이승방 청량사, 새절승방 청룡사에 소속된 비구니들의 활동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도성 밖 4승방’으로 불리던 이 사찰들이 비구니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음을 보여 준다.

48 탁효정, 「19세기 불교계 동향과 송광사의 위상: 王室願堂 설치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45(2016), 145~148쪽.

이 가운데 특히 옥수동 미타사에 소속된 비구니들의 활동은 특히 두드러지며, 봉은사의 불사에도 옥수동 미타사와 보문동 보문사의 비구니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도성 밖 비구니 사찰들이 독자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인근의 대찰들과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강산 지역에서의 비구니 활동도 매우 주목된다. 금강산은 조선시대 불교의 대표적 수행처로, ‘조선 불교의 요람’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고승과 선지식들을 배출한 지역이다. 유점사와 신계사 등 금강4사로 불리던 사찰들에서도 다수의 비구니 법명이 확인되며, 이는 금강산이 비구뿐 아니라 비구니에게도 수행과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경기와 금강산이라는 두 지역이 비구니 활동의 주요 거점이 된 배경에는 각각의 상징성과 제도적 기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특히 한성부와 인접한 지역의 사찰들은 왕실의 정치적 비호와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유지되었고, 봉은사는 조선 후기까지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찰로 여성 후원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공간이었다. 또한 한성부 및 경기 지역은 비구니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사찰들이 다수 존재했던 곳으로, 강화도 지역의 비구니 사찰들도 그 예에 속한다.⁴⁹

요컨대, 불서 명단상으로 보았을 때 도성 밖 사승방과 강화도, 금강산의 수행처는 조선 후기 비구니들의 대표적인 활동 무대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 비구니 승가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기반을 확립하고 수행 거점을 형성해 간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9 탁효정, 앞의 글(2022a), 155~160쪽.

3. 참여 목적: 효행의 실천과 천도 중심의 경전 간행

조선시대 비구니들이 불서 간행에 참여한 주요 동기는 속가 부모의 현세적 안녕과 내세의 천도(薦度)에 있었다. 경전 간행 시 시주자 명단을 보면, 비구니들의 참여 목적이 명시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爲父母’, ‘爲亡父母’ 등 부모의 축원이나 천도를 위한 것임을 밝혔다. 특히 참여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례는 680명 중 315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생존한 부모나 선망 부모를 축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은사를 추모하는 경우도 확인되며, 일부는 ‘亡恩師 ○○’와 같이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靈駕’ 또는 ‘○○伏爲’와 같이 추모 대상만 언급되어, 추천자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석왕사에서 간행된 『역산집』의 경우, 비구니 수계 제자들이 스승의 추모 문집 간행에 동참하기도 했다.

원래 불교의 출가는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동아시아 불교는 유교적 효(孝) 사상과 결합하면서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유교가 이념적 중심을 이루던 조선 사회에서 불교는 정토 사상과 효 사상을 결합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효행과 천도를 목적으로 한 불서 간행은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조선 불교 전반에 널리 퍼진 신앙 행위였다.

이러한 경향은 니승들의 불서 간행 참여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비구니들의 불서 간행 참여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행적·사회적 역할을 구체화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비구니들은 부모나 은사의 천도를 발원하며 경전 간행에 동참함으로써, 개인의 효심을 보살행의 실천으로 전환했다. 대승불교는 ‘중생을 이익케 하는 자가 곧 보살’이라 하며, 법보시(法布施)를 모든 보시 가운데 으뜸으로 여긴다. 『유마경』의 「법공양품(法供養品)」에서는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법공양이며, 법을 설함으로써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화경』 또한 “한 구절의 법이라도 설하는 것은 천량의 금은을 보시하는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설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법을 펴고 경전을 유포하는 행위가 중생을 제도하는 공양으로 여겨 왔으며,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보살행의 인식이 이어져 출가 수행자들이 효행과 사회적 보살행을 실천하는 신앙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비구니들의 경전 간행 참여는 조선 불교의 보편적 신앙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실천이면서도, 동시에 출가 여성 수행자가 ‘효’와 ‘천도’라는 사회적 가치에 응답하며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낸 행위였다. 이들은 경전 간행을 통해 가족과 은사, 지역 공동체에 공덕을 회향하며 불교 신앙을 사회 속에서 구체화했다. 이러한 양상은 비구니 신행이 단순한 개인 수행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4. 참여 범위: 전국적 대화주 활동

불서에 기재된 니승 명단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일부 비구니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보시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사지나 불화의 기록이 대개 특정 사찰에 한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목판본 불서는 전국적인 모연 활동을 통해 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대에 대화주로 명성이 높았던 비구니들이 『화엄경소초』 판각과 같은 대규모 불사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된다.

예컨대, 봉은사본 『화엄경소초』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비구니뿐만 아니라, 금강산 일대의 유점사·신계사·장안사, 충청도의 법주사, 경상도의 대승사·도리사 등에서 활동하던 비구니들의 참여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조선 후기에 비구니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봉은사본 『화엄경소초』의 연화질에는 총 440명의 비구니 명단이 실려 있고, 이 중 16명은 화주로 활동했다. 또한 화주와 참여 니승들의 활동 지역도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이처럼 단일 불사에 다수의 비구니가 전국적 규모로 참여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며, 비단 비구니뿐 아니라 궁중의 상궁까지도 화주로 참여한 점은 당시 서울·경기 지역 불교계의 역량이 총동원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화주로 활동한 유봉(有奉), 상엽(尙燁), 법신(法信), 취운(就允), 대용(大庸) 등은 자금 조달력과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 비구니 승가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상엽과 유봉은 불서 간행뿐만 아니라 불화의 화기(畵記)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상엽은 공주 마곡사 출신으로, 1852년 공주 마곡사 나한전 중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 신계사, 고성 화암사, 예천 용문사 등 여러 사찰에서 화주 혹은 시주자로 활약했다. 유봉은 서울 보문동 보문사 출신으로, 1865년 보문사 대웅전 상량문을 비롯한 다수의 불사에 이름을 올렸으며, 봉은사본 화엄경소초 경판 제작 및 판전 건립 시에 화주로 활동하고 불량을 회사했다. 또한 철원 성주암, 간성 건봉사, 양산 통도사의 불서 및 불화의 시주자로 참여했다.

이처럼 19세기에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비구니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 봉은사본 『화엄경소초』와 같은 대규모 불사에 비구니들의 대거 참여가 가능했다. 이는 조선 후기 비구니 네트워크의 실재를 시사할 뿐 아니라, 비구니들이 승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V. 맺음말

조선시대 불서는 불교의 교리 전파와 신앙 실천을 위한 중요한 매체이자, 사찰의 조직력과 신앙 기반을 드러내는 문화유산이다. 특히 불서의 연화질, 시주질에 기재된 명단은 당대 불교계 인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불교사 연구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불서의 시주자 명단 가운데 비구니, 사미니 등 ‘니승(尼僧)’ 683명의 범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비구니 승가의 실태와 활동상을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했다.

첫째, 시기별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니승 관련 기록이 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존 불서 수나 전체 시주자 수가 16~17세기에 집중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당시 비구니들의 활동이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더 활발했거나, 문헌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았던 시대적 배경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19세기에는 전체 니승 기록의 87.5%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시기 비구니들의 경제적 기반과 조직적 활동력이 강화되었고, 승가 내의 위상 또한 향상되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지역별 분포 분석에서도 주목할 만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한양 인근과 금강산 비구니들의 활동이 크게 두드러졌다. 비구니들의 명단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된 반면, 조선시대 불서 간행이 가장 활발했던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니승 명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문헌 생산 지역과 니승 활동의 비례 관계로 단순히 설명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정 지역의 비구니 승가 조직, 재정 기반, 불사 참여의 제도화 여부 등이 니승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특히 봉은사본 『화엄경소초』에만 440명의 니승이 참여한 것은 한성부·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구니 네트워크가 매우 조직적이고 활발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셋째, 니승들이 불서 간행에 참여한 주된 목적은 속가 부모의 현세적 안녕과 내세의 천도에 있었다. 이들은 불서 간행을 통해 부모와 은사, 지역 사회에 공덕을 회향하고자 했다. 이는 조선시대 경전 간행을 통한 법보시(法布施) 문화가 불교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비구니들의 신행이 사찰 내 개인 수행에 그치지 않고, 경전 간행, 불사 후원, 천도 의례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연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조선 후기 일부 비구니들, 특히 도성 밖 4승방과 금강산의 비구니들은 자신이 속한 사찰이나 지역을 넘어 전국을 넘나들며 활발한 보시 활동을 전개했다. 사지나 불화의 기록이 대개 특정 사찰의 내부 상황만을 반영한 데 비해, 목판본 불서는 전국적인 모연 활동을 통해 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당대에 대화주로 명망이 높았던 비구니들이 이러한 대규모 불사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들은 단순한 시주자에 그치지 않고 화주로 활동하며 불사 모연의 주체로 활약했다. 이는 조선 후기 수도권과 금강산 일대에서 비구니의 위상이 결코 주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그들이 불교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선시대,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비구니들은 불서 간행을 매개로 승가 내부는 물론 대중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불교 문화의 전승과 신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乾鳳寺及乾鳳寺本末史蹟』.
『金山寺誌』.
『大乘寺誌』.
『梵魚寺誌』.
『奉先本末寺誌』.
『雪峯山釋王寺略誌』.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拭疣集』.
『楡岾寺本末寺誌』.
『仁祖實錄』.
『傳燈本末寺誌』.
『終南山彌陀寺略誌』.

2. 논저

- 김선기, 「조선 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2013a.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자료집 II』, 대전: 문화재청, 2013b.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인천·경기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2013c.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자료집 I』, 대전: 문화재청, 2013d.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자료집 II』, 대전: 문화재청, 2013e.
문화재청 편집부(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자료집 III』, 대전: 문화재청, 2013f.
손계영, 「조선시대 성주지역 책판과 출판문화의 특징」, 『서지학연구』 99, 2024, 163~189쪽.
송천 스님·이종수·허상호·김정민(편저),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서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옥영정,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파주: 글항아리, 2013.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서울: 불광출판사, 2017.
이상백, 「조선 후기 사찰의 불서 간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이향순, 「감로도에 나타난 조선의 비구니승가」, 『한국문화』 49, 2010, 51~72쪽.

전영숙, 「조선 초 불경언해와 불자여성의 참여」, 『선문화연구』 33, 2022, 7~43쪽.

전영숙, 『역사 속 한국비구니』, 서울: 민족사, 2025.

탁효정, 「19세기 불교계 동향과 송광사의 위상: 王室願堂 설치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45, 2016, 137~171쪽.

탁효정, 「조선시대 봉은사 수륙재의 역사적 전개」, 『동양고전연구』 73, 2018, 119~152쪽.

탁효정,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 『전등본말사지』에 수록된 비구니 명단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03, 2022a, 133~165쪽.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비구니 명단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70, 2022b, 25~58쪽.

탁효정, 「조선후기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분포와 특징」, 『한국학』 46-4, 2023, 185~225쪽.

탁효정, 「조선시대 佛畫 畫記에 나타난 비구니 명단과 활동」, 『인문학연구』 37, 2024a, 377~425쪽.

탁효정, 「조선후기 비구니의 활동과 비구니사찰의 특징: 寺誌에 기재된 尼僧 범명 DB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10, 2024b, 73110쪽.

3. 기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조선시대불서인명 DB, <https://kabc.dongguk.edu/budna/index>.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불서에 수록된 비구니 명단을 통해 비구니 승가의 활동 실태와 사회적 위상을 고찰한 연구이다. 특히 불서의 간행 시기, 지역 분포, 참여 동기, 활동 범위, 신앙적 의미 등의 측면에서 비구니의 활동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구니들의 불서 간행 참여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집중되며, 이는 당시 승가 인구의 감소와 사찰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비구니들이 불사 운영과 신앙 실천의 주체로 부상했음을 알려 준다.

지역적으로는 한양 도성 외곽의 4승방과 금강산 일대에 비구니 활동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수도권의 제도적 기반과 금강산의 수행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결합된 결과로 파악된다. 비구니들은 주로 부모의 천도와 효행 실천을 위해 경전 간행에 참여했으며, 이는 유교적 효 사상과 불교적 보살행이 결합된 신앙 실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비구니들은 지역을 초월한 대규모 불사에 화주로 참여하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조선 후기 비구니 승가가 불교 신앙의 전파와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 준다.

투고일 2025. 10. 9.

심사일 2025. 11. 3.

게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조선(Joseon), 불서(Buddhist text), 비구니(Bhikkhuni), 여승(Buddhist nun), 사승방(four Seungbangs)

Abstract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hikkhunis Recorded in Buddhist Texts of the Joseon Dynasty

Tak, Hyo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and social status of Buddhist nuns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an analysis of nun lists recorded in Buddhist scriptures. The analysis focuses on five aspects: the period and region of scripture publication, motivations for participation, scope of activities, and religious significance.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participation of nuns in scripture publication was concentrated from the late 18th to the 19th century, indicating that despite the decline of the sangha popul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temples, female monastics emerged as key agents in religious projects and devotional practices.

Geographically, the activities of these nuns were concentrated in the four Seungbangs on the outskirts of Hanyang (present-day Seoul) and around Mount Geumgang, reflecting the institutional base of the capital and the mountain's role as a center for Buddhist practice. Nuns primarily engaged in scripture publication to honor their parents' spirits and practice filial piety, combining Confucian filial ideals with Buddhist bodhisattva practices. Some also participated as major sponsors in large-scale religious projects beyond their regions, forming extensive networks. These activities demonstrate that the bhikṣuṇī community in late Jose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issemin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Buddhist faith.